

Working Paper 2005-03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및 요구 요인

임 언

2005. 6.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및 요구 요인

임 언¹⁾

< 목 차 >

I. 서론	1
II. 선행연구	3
III. 연구방법론	8
IV. 분석결과	9
V. 결과 및 논의	20
참고문헌	22

I.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은 사회발전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국가 전략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직업생활을 유지 또는 발전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OECD(2003)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평생학습은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인적자본의 축적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생학습이 개인의 well-being,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e-mail : elim@krivet.re.kr)

건강에 기여하며 범죄율을 낮추며, 셋째,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평생학습은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정치적 참여를 높여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평생학습이 개인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이와 같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일찍이 플라톤이 공화국에서 'education in life'의 개념을 제시하였듯이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OECD, 2003). 그러나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를 UNESCO(1972)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이래 평생학습을 논하는 맥락에 따라서 강조점이 변화하였다. UNESCO에서 평생학습을 거론하였을 때는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이 있었던 반면에, OECD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의 축이 옮겨가면서 경제적 효율성, 국가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박성정, 2001). 그 가운데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는 학자와 맥락에 따라서 UNESCO에서 강조한 전인적 자아실현과 OECD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이 부침을 반복하였다는 것이다(이희수외, 2002).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에도 이와 유사하게 대치하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거대담론에 종속된 도구적 논의로만 한정되어 정작 본질적인 교육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한승희, 2002)이 있는 반면, 오히려 현재보다 더욱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 평생교육의 초점이 옮겨져야 한다는 입장(정태화, 2004)이 있다. 물론 전자는 학문적 담론을 위한 것이며, 후자는 매우 현실적이며 실천적인 입장에서의 논의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대비시키기 어려우나, 현재의 평생학습의 핵심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 주고 있다.

평생학습의 이념에 대한 이견과 함께 평생학습과 성인학습의 관계에 대해서도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평생학습의 개념이 삶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강조점은 초기교육(initial education)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되는 교육을 의미하므로 평생학습 논의에서의 주 대상은 성인학습자이다. 따라서 OECD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최근의 평생학습 현황에 대한 논의에서 성인학습 또는 성인교육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OECD, 2003; OECD, 2005; Canada Statistics, 2001). 국내 논의에서는 평생교육(최돈민외, 1999; 정태화, 2004; 박성정, 2001; 한승희, 2002; 최향석, 2004) 또는 평생학습(이희수 외, 2002)이라는 용어와 성인학습(손준중, 2004; 김영화)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전제 없이 평생학습과 성인학습을 혼용하는 것과 달리 평생교육이 추상적 아이디어로서 출발하여 실천으로 구현되었고, 성인교육은 사회적 실천에서 시작하여 개념화되었으며, 평생교육이 제도권에서 발전하였다면 성인교육은 비제도권에서 발전하였다고 대비하면서, 성인교육을 단순히 평생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박성정, 2001). 즉, 성인교육을 흡수한 평생교육은 성인교육의 실천적이며 참여적 전통을 전혀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논의가 성인의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에 대한 강조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성인학습을 평생학습의 주요 요소로 보는 입장(OECD, 2005; 최운실, 2001)을 취하고자 한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관점의 다양성 또는 개념적 혼란은 평생학습에 대한 경험적 연구도 반영되어, 다양한 개념과 기준에 따라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 결과 평생학습의 기본적인 실태에 대한 정보조차 명료하지 않은 실정이다. 평생학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실태 파악이지만, 선행연구(손준중, 2004; 이숙원, 2003; 최운실외, 2003; 김영화, 2001; 이정표 외, 2000; 최돈민, 1999)가 포괄하는 대상,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여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평생학습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손준중(2004)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요인에 대한 연구, 이숙원(2003)이 대학평생교육 참여지속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들은 각각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학평생교육에서의 참여 지속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연구로서 포괄적인 의미의 평생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OECD와 캐나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성인직업기초능력조사(AL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 Survey)과정에서 수집된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의 평생학습의 참여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며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및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1. 성인학습자 정의 및 평생학습의 형태

가. 평생학습자의 범위

평생학습 실태에 대한 선행 조사 또는 논의에 대한 검토는 각 연구마다 포괄하는 평생학습범위와 학습주체의 정의가 다양하여 결과를 종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대규모로 행해진 외국의 조사나 국제비교 조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OECD, 2003).

대표적인 국제 조사인 성인 문해력 조사(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이하 IALS)에서는 16-65세 성인 중에서 풀타임 학생과 6시간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한편 유럽연합 노동력 조사(European Union Labor Force Survey, 이하 ELFS)에서는 4주 이상 참여한 학습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캐나다 통계청(2001)에서는 16세까지가 의무 교육이므로 17세에서 24세까지의 전일제 학생을 제외하되, 고용주에 의하여 지원되는 학생, 19세 이상으로서 초등 또는 중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자, 24세 이상이면서 고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포함하고 있다. 이는 16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초기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초기 교육을 마친 후 다시 교육을 받는 경우만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지닌 조사는 사회통계조사이며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나영선, 2003; 김영화, 2001)에서는 25-64세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의 성인학습 실태 조사의 관례를 따른 결과이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의 군 입대로 인하여 25세면 초기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계속 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을 포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중 전일제 학생을 제외한 경우를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나. 평생학습의 형태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 평생학습이 구현되는 상황 및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OECD(2003)에 의하면, 평생학습의 상황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다. 학습의 상황이 얼마나 구조화되었는가에 따른 형식적인(formal) 정도, 평생학습 참여 목적이 개인적(personal)인 것인가 아니면 직업적인 이유(professional)에서 참여하는가? 전일제인가 아니면 파트타임인가라는 세 가지 차원이 교차하는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형식, 준형식, 비형식(formal, non-formal, informal learning)²⁾이라는 용어는 1972년 UNESCO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형식학습은 구조화된 상황에서 명료하게 교육활동을 규정하며, 학습의 결과로 학력을 포함한 일정한 자격이 주어진다. 정규학교 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이 이에 속한다. 준형식 학습은 조직화된 학습 활동이지만 학습의 결과에 따른 자격이나 인증이 따르지 않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단기 강좌가 이에 속한다. 비형식학습은 조직화된 강좌나 프로그램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학습으로서, 세미나 참여나 박물관 관람과 같은 활동이 이에 속한다.

평생학습의 범위에 준형식이나 비형식을 포함하는 정도에 따라서 평생학습 참여율이 크게 차이난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성인학습에 대한 참여율이 27.7%(Adult Education and Training Surveys, 1998)에서 96.7%(New Approach to Lifelong Learning Survey)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그 이유는 후자의 경우 비형식 학습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캐나다인 대부분이 일상의 생활에서 비형식적인

2) formal, non-formal, informal learning을 형식, 비형식, 무형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여 형식, 준형식, 비형식으로 번역하고자 함.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OECD, 2003).

<표 1>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의 조사대상 및 내용

연구자	표집크기 또는 자료원	대상연령	참여율	평생학습 내용	기간 제한
OECD(2000)	IALS	16-65세 중 풀타임학생 제외	64.8%- 15.7%	형식학습, 준형식	지난 12개월 6시간 이상 참여
OECD(2005)	EUFFS(2002)	25-65세	18.9%- 2.9%	형식학습, 준형식	지난 12개월, 4주 이상
캐나다통계청 (2001)	Labor Force Survey(1984-1 998)	17세 이상	28%	형식학습, 준형식	지난 12개월
최운실·이희 수·변종임 (2003)	4,513명	20세 이상	34.7%	학교에서의 정규수업 이외의 취미, 교양, 여가, 건강교육, 레크리에이션, 개인교습, 원격수업, 강습, 직업훈련	지난 1년
손준중(2004)	노동패널('98)	10대-60대	12.2%	직업교육훈련	지난 1년
나영선(2003)	2000년 사회통계조사	25-64세	19.3%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및 라디오 강좌 청취, 기타	지난 1년
김영화(2001)	1996년 사회통계조사	25-64세	17.4%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및 라디오 강좌 청취, 기타	지난 1년
이정표(2000)	1,000명	15-64세	20.3%	직업교육훈련	지난 3년

2. 평생학습 실태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 평생학습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손준중, 2004; 최운실외, 2003; 김영화, 2001; 이정표 외, 2000; 최돈민, 1999)가 있으나, 이 연구마다 포괄하는 학습자의 특성 및 평생학습의 형태가 다양하여 평생학습의 실태를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렵다.

장홍근과 홍선이(2001)의 생산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생산직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현 직장에서 교육훈련 경험 중 안전교육을 제외하면 7~8%가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이병희·김미란(2000)의 선행연구에서 전체 임시·일용 근로자의 교육훈련 경험 비율이 2.4%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할 때, 생산직 비정규 근로자들이 다른 직종의 비정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훈련 경험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정도는 나이, 학력, 취업형태(전일제, 시간제, 임시직, 일용직, 파견사원)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정표(2000)는 15-64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참여 실태 및 요구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20.3%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며, 학력 면에서는 고졸, 대졸, 전문대졸, 중졸이하의 순서로 참여율이 높았다.

나영선(2003)은 2000년 사회통계 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여 25-65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19.3%이며,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것을 재확인하였다. 김영화(2001) 역시 사회통계조사(1996)결과에 기초하여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직업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초기 교육 이후의 계속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와 캐나다 통계청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성인문해국제비교조사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IALS, 1994-1998)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생학습 참여율은 핀란드(64.8%), 덴마크(60.1%), 스웨덴(59.2%), 영국(53.7%), 노르웨이(53.5%), 미국(48.1%), 캐나다(40.6%) 등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높은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포르투갈은 15.7%로서 가장 낮았다. IALS에서는 형식학습(formal)과 준형식학습(nonformal)을 포괄하여 직업과 관련한 것만이 아니라 여가 및 취미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강좌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OECD(2003)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고 있다. 첫째, 평생학습의 정의가 다양하여 정확하고 명료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국가 간 참여율이 매우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참여 시간은 국가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IALS와 ELFS(Eurostat, 1997)에 의하면 여성이 약간 더 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보다는 여가와 취미를 위한 교육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나이가 젊을수록 평생학습에 더 많이 참여한다. 50대 이후의 성인학습의 감소는 교육 및 훈련에 예상되는 경제적 대가가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다. 다섯째, 평생학습 참여에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은 교육수준으로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평생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여섯째, 성인학습에 참여하는 이유로서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직업과 관련된 목적이다.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는 80% 이상이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 및 장애 요인

평생학습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김영화(2000)는 재정 및 시간과 같은 '상황적 장애',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는 방식에 관련된 '구조적 장애', 자신감 및 동기 등 '성향 면에서의 장애'로 구분하였다. 정지선(1999)의 조사 결과를 재해석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대다수가 '시간부족'(54.9%), 육아나 가사(16.3%), '비용

부족(10.6%)'과 같은 상황적 요인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부족(21.9%),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4.0%),'교육기관과 거리가 멀어서(4.0)%와 같은 구조적 장애요인과 '학습에 대한 동기 부족(6.1%)'으로 나타나는 성향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았다. 학습에 할애할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학습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학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OECD(2003)가 IALS(1994-1998)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5-64세 성인학습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시간관리(time management)', '훈련의 특성(nature of training)', '개인적 상황(personal situation)'으로 구분하였다. 직업과 관련된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 시간부족(36.1%), 일이 너무 많아서(17.4%), 가족을 돌봐야하기 때문(15.4%)과 같은 시간관리 요인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로 나타났다. 시간이 장애가 되는 정도는 직업과 관련되지 않은 취미 또는 여가와 관련된 학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시간부족:55.1%, 할 일이 많아서:17.4%, 가족을 돌봐야하기 때문:17.1%). 교육 및 훈련의 특성에 해당되는 요인으로는 비용(직업관련 학습: 23.3%, 취미 및 여가 학습:16.7%)이 가장 두드러진 이유이었으며, 마음에 드는 강좌가 없어서(직업관련 학습: 12.8%, 취미 및 여가 학습:5.5%),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직업관련 학습: 12.2%, 취미 및 여가 학습:10.2%)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인적 상황 요인으로는 고용주의 지원 부족이 직업관련 학습에서는 10.2%로서 높았으나 취미 및 여가 관련해서는 건강(5.2%)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4. 평생학습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다양한 요인별로 제시한 연구에 비하여, 그러한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이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손준중(2004)은 1998년 노동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임금근로자 4,012명과 미취업자 1,256명의 응답 자료를 기초하여 직업교육훈련 참여율과 참여 요인을 분석하였다. 임금근로자의 12%, 미취업자의 12.5%가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하여 응답자 전체의 12.1%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의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이란 직업을 구하거나 일(직무)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의 훈련 및 교육으로서 실직자 재취업훈련, 기능사 양성 훈련, 사업체내 업무능력 향상 훈련이 포함되나, 취미나 일반교양을 위해 받은 교육은 포함하지 않아 평생학습의 실태 자료로서는 부분적인 정보만을 주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참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이만이 직업교육훈련과 부적 상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수준이 참여율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희망과는 정적인 관계를 확인하여,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학습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는 2004년 전국에 거주하는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5,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에 기초한다. 이 조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인 『성인직업기초능력 실태』의 일환으로 OECD와 캐나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성인의 문해 및 생활능력조사(ALL: 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에 참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다단계 유층 집락표집에 따라서 540개 PSU를 선정하고 하나의 PSU당 15가구를 하였으며, 한 가구 내에서 1인을 조사 대상자로 표집하였다. 전체 표본 중 전일제로 학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 4,782명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ALL 조사에서는 수리능력, 문서이해력, 독해력, 문제해결력을 포함하는 기초능력과 다양한 질문을 배경설문에서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내용만을 분석에 포함한다.

가. 평생학습

본 연구에서의 평생학습은 형식과 준형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구조화된 형태로 제시되는 프로그램 및 강좌를 포함한다. 프로그램은 학습의 결과에 따라서 공식적인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강좌는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 단기성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나. 비형식학습

공식적이며 체계적인 학습활동 이외에 일상생활에서의 지식과 기술 습득 활동으로서 박람회, 전문가회의, 강연참여, 학습목적으로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 평생학습 요구

지난 12개월 동안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있었는가 여부로서 요구를 측정한다.

라. 심신건강(well-being)

종합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포괄하는 다면적인 질문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7개 문항에 대한 합산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심신건강지수의 신뢰도 지수는 .81이었으며, 요인분석결과 단일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 단체활동 참여

개인이 사회 및 지역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하여 정치단체, 스포츠클럽을 포함하여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활동의 수를 의미한다.

바. 사회봉사

비형식적인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의 형태를 4종류로 제시하여 참여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봉사 종류의 수를 의미한다.

마. 배경 요인

성, 교육수준, 거주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가계소득수준을 배경 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IV. 분석 결과

1.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관련 요인

가. 평생학습 실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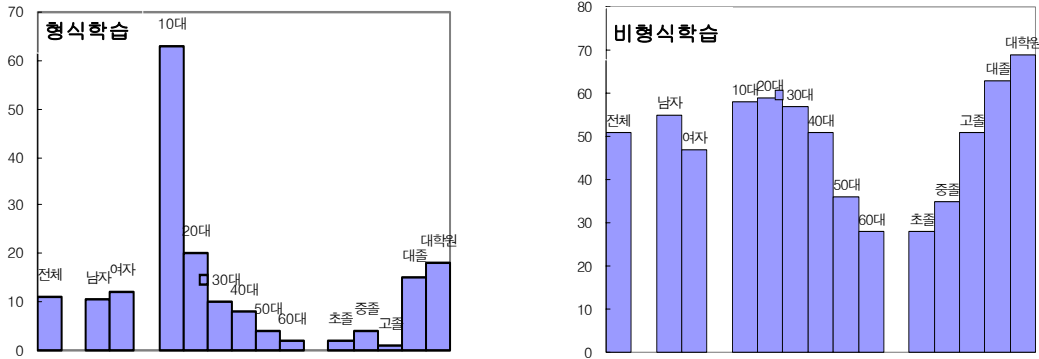
우리나라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중 전일제 학생을 제외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11.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04년 사회통계 조사 결과인 21.6%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참여율이 낮게 나온 주된 이유는 응답자가 해석한 성인 학습의 의미의 차이에 있었다고 본다. ALL 조사에는 '지난 12개월 동안 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주로 정규 프로그램과 강좌 중심으로 상세한 참여 상황을 질문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으로 범위가 한정된 반면에, 사회통계조사에서는 귀하는 지난 1년 동안(1999. 7. 16~2000. 7. 15) 다음의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후에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및 라디오 강좌 청취, 기타로서 제시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학습을 포함할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또는 강좌로서 보다 체계적인 학습 경험에 한정된 반면에 사회통계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인 성격이 있는 'TV 및 라디오 강좌'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통계조사 결과와의 일치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 비형식 학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 중의 하나로 '학습 목적으로 TV나 비디오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포함하여 평생학습 참여율을 재계산한 결과 19.2%로서 사회통계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OECD와 캐나다 통계청이 동일한 형식으로 질문하여 2000년도에 보고한 IALS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낮은 포르투갈이 15.7%이며 평생학습 참여율이 가장 높은 핀란드는 64.8%로서 우리나라는 이에 비하여 형식적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형식 및 준형식 학습의 참여율은 학습의 결과로 자격증이나 학력이 부여되는 '교육프로그램'과 체계적인 학습이기는 하지만 이수에 따른 공식적인 증표가 제시되지 않는 '강좌'에 참여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활동 외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일어나는 비형식 평생학습의 실태를 병렬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비형식 학습별로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 가지 이상의 비형식 학습에 참여한 경우는 51.0%로서 성인의 절반 이상이 다양한 맥락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비형식학습 참여율은 남자가(55.0%) 여자(47.3%) 다소 높아서 형식학습에서의 추이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형식학습 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력이 증가할수록 학습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및 요구 요인(임 언)



[그림 1] 주요 요인별 평생학습 참여율(단위: %)

<표 2> 형식 및 비형식 평생학습 참여율(단위:명, %)

구분	성별	연령	학력	고용상태	구인원수	형식 및 준형식 학습 참여율	비형식학습 참여율									
							박람회, 문화의 총회	강연, 세미나, 워크숍	사용안내 및 서기 학습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답사	인터넷 컴퓨터 이용 학습	TV,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타인의 도움 및 조언	자신의 체험 및 시찰	부서동	전체
전체					4782	11.1	12.1	14.4	21.0	15.7	19.8	12.3	18.5	32.9	4.8	51.0
성별	남자				2328	10.7	16.2	16.5	25.6	14.1	21.8	12.6	20.8	36.9	6.2	55.0
	여자				2454	11.5	8.3	12.4	16.7	17.3	18.0	12.0	16.3	29.1	3.5	47.3
연령		10대			60	63.3	6.7	5.0	18.3	21.7	41.7	30.0	35.0	40.0	5.0	58.3
		20대			1014	20.2	12.7	16.8	26.1	15.9	30.5	18.1	27.3	37.8	8.9	59.3
		30대			1427	10.3	14.6	17.1	25.2	18.6	26.3	15.3	21.0	37.0	5.5	57.4
		40대			1030	8.4	13.0	15.5	20.7	16.4	15.0	9.2	15.5	32.4	3.7	50.6
		50대			604	3.8	8.3	9.4	10.9	9.6	5.8	4.0	7.8	21.2	1.2	35.9
		60대			284	2.1	3.9	3.9	9.2	9.2	1.8	2.1	8.1	19.0	0.4	27.8
학력			초졸		349	2.0	3.2	2.6	4.9	8.0	1.1	1.1	4.9	18.3	0.3	28.1
			중졸		726	4.4	6.3	6.7	8.8	11.7	5.1	5.1	10.3	23.6	1.1	35.0
			고졸		2252	11.1	10.2	12.3	19.0	15.3	19.0	11.3	18.0	33.3	4.0	50.7
			대졸		467	14.8	11.6	18.0	31.0	19.3	30.0	18.4	27.4	36.6	7.9	63.0
			대학원		946	18.3	25.4	28.6	37.1	21.4	35.9	21.9	27.5	43.7	9.9	68.5
고용상태			취업		3222	10.5	15.3	17.6	25.3	15.0	22.2	12.9	20.8	37.2	6.3	55.8
			실업		102	23.5	6.9	9.8	24.5	10.8	29.4	18.6	22.5	34.3	4.9	45.0
			비경제활동		1380	10.9	5.7	7.9	11.0	17.9	13.3	10.1	12.5	22.6	1.1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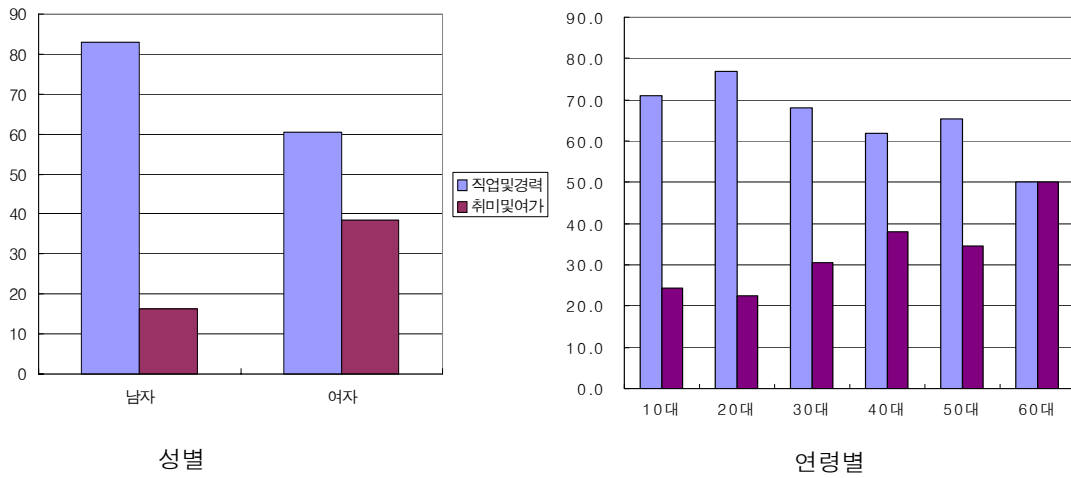
평생학습에 참여한 목적을 형식학습과 준형식 학습으로 구별하여 질문한 결과, 형식학습의 경우 전체의 81.2%가, 준형식 학습은 63.7%가 직업 또는 경력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IALS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OECD가

분석한 경우 프로그램과 강좌를 통합하여 직업이나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 노르웨이 90.8%, 영국 85.3%, 덴마크 83.7%, 캐나다 79.1% 핀란드 61.6%, 스위스 60.1, 스웨덴 39.6%로서 국가별로 차이가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강좌에 참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직업 및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형식적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형식 및 준형식 학습 참여 목적

	형식학습				준형식학습				
	직업 또는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을 위하여		직업 또는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양교육을 위하여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0	81.2	40	17.9	200	63.7	111	35.4	
성별	남자	90	87.4	12	11.7	125	80.1	30	19.2
	여자	100	76.3	30	22.9	75	47.5	81	51.3
연령	10대	26	72.2	8	22.2	6	66.7	3	33.3
	20대	110	83.3	22	16.7	57	67.1	27	31.8
	30대	31	86.1	5	13.9	69	62.2	40	36.0
	40대	13	72.2	5	27.8	39	59.1	27	40.9
	50대	5	71.4	2	28.6	12	63.2	7	36.8
학력	초졸	3	100.0	0	.0	3	60.0	2	40.0
	중졸	7	43.8	7	43.8	10	52.6	9	47.4
	고졸	113	82.9	25	18.1	70	53.0	60	45.5
	대졸	22	88.0	3	12.0	28	70.0	12	30.0
	대학원	45	96.5	7	13.5	89	75.4	28	23.7
고용상태	취업	103	88.8	13	11.2	174	79.8	42	19.3
	실업	12	80.0	3	20.0	7	70.0	3	30.0
	비경제 활동	63	70.8	24	27.0	15	19.0	63	79.3

여자는 남자에 비하여 평생학습의 목적이 취미 또는 여가를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과 경력을 위한 것보다는 취미와 여가를 위한 학습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2] 성별, 연령별 평생학습 참여 목적

형식 및 준형식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본인 또는 가족이(형식학습: 85%, 준형식 학습: 59.6%) 부담하고 있었으며, 고용주(형식학습: 6.4%, 준형식 학습: 22.0%)나 정부(형식학습: 6.0%, 비형식 학습: 7.6%)가 부담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형식학습과 준형식학습에서 일관되게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 평생학습 비용 부담 주체

		형식 학습					준형식 학습					
		본인 가족	고용주	정부	조합 또는 전문회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음	본인 가족	고용주	정부	조합 또는 전문회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음	
전체	빈도	199	15	14	5	1	187	69	24	9	26	
	%	85.0	6.4	6.0	2.1	.4	59.6	22.0	7.6	2.9	8.3	
성별	남자	빈도	85	7	5	5	1	79	47	12	7	11
		%	82.5	6.8	4.9	4.9	1.0	50.6	30.1	7.7	4.5	7.1
	여자	빈도	114	8	9	0	0	108	22	12	2	15
		%	87.0	6.1	6.9	0	0	68.4	13.9	7.6	1.3	9.5
연령	10대	빈도	32	1	1	0	0	9	0	0	0	0
		%	88.9	2.8	2.8	0	0	100.0				
	20대	빈도	122	6	4	1	1	55	18	2	2	7
		%	92.4	4.5	3.0	.8	.8	64.7	21.2	2.4	2.4	8.2
	30대	빈도	29	3	4	0	0	70	20	10	5	8
		%	80.6	8.3	11.1	0	0	63.1	18.0	9.0	4.5	7.2
	40대	빈도	10	4	1	3	0	35	17	7	0	7
		%	55.6	22.2	5.6	16.7	0	53.0	25.8	10.6	0	10.6
	50대	빈도	3	1	3	0	0	8	6	3	1	2
		%	42.9	14.3	42.9	0	0	42.1	31.6	15.8	5.3	10.5
	60대	빈도	0	0	0	0	0	2	0	1	1	1
		%						33.3	0	16.7	16.7	16.7
고용 상태	취업	빈도	92	12	9	5	0	104	65	17	9	23
		%	79.3	10.3	7.8	4.3	0	47.7	29.8	7.8	4.1	10.6
	실업	빈도	13	1	1	0	0	7	2	2	0	0
		%	86.7	6.7	6.7	0	0	70.0	20.0	20.0	0	0
	비경제활동	빈도	81	2	3	0	1	69	2	5	0	3
		%	91.0	2.2	3.4	0	1.1	87.3	2.5	6.3	0	3.8

나. 평생학습(형식, 비형식) 참여 요인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개인적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형식 및 준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별 참여 여부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 성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거주 지역 규모, 참여하는 단체 종류의 수, 자원봉사 참여 종류 수, 심신의 건강상태를 포함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형식 및 준형식 평생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나이, 최종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단체참여이다.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형식적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재직자보다는 구직자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성인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형식 평생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나이, 학력, 취업상태, 가구소득,

단체참여, 자원봉사활동, 심신의 건강상태이다. 형식 및 준형식 학습과는 달리 구직자보다 재직자가 더 비형식학습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자원봉사활동과 정서 및 신체 건강이 비형식 학습 참여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평생학습과 무관하였으나,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계조사 결과³⁾에 의하면 평생학습 참여율 성별 차이는 해가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 참여 요인을 분석한 손준중(2004)과 이정표(2000)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참여율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평생학습 참여에서의 성별 차이는 현재로서 일관된 경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연령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언변인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형식 및 준형식 평생학습의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교육훈련 참여에 관한 손준중(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외국에서 학력이 가장 큰 예언력을 가졌으며, 그 다음이 연령으로 나타난 결과(Belanger와 Valdiviselo, 1997; Statistics Canada, 2001)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비형식학습에는 연령보다는 최종학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력과 평생학습 참여간의 정적인 관계가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형식적 비형식적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종 단체(정치, 스포츠, 문화, 봉사활동, 지역, 종교와 관련된 단체 활동에 참여 여부와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 여부가 평생학습 참여와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및 신체적 건강상태는 비형식학습과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평생학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집단의 개인적 특성의 일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이유 및 양상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필요가 있다.

3) 1996년(남자:21.6%, 여자:13.5%)(김영화, 2001, 24세~64세), 2000년(남자:19.4%, 여자:17.2%, 통계청 웹사이트) 2004년(남자:23.8, 여자:19.6%, 30세 이상, 통계청 웹사이트)

<표 5> 평생학습(형식 및 비형식) 참여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 결과

형식학습(formal)				비형식(informal)			
	B	S.E.	Wald		B	S.E.	Wald
성별	-.05	.15	.10	성별	.04	.09	.14
연령	-.07	.01	87.57***	연령	-.03	.00	44.78***
최종학2	.27	.06	18.63***	최종학2	.29	.04	54.58***
취업상태			6.56**	취업상태			50.48***
취업상태(1)	.43	.23	3.45*	취업상태(1)	-.06	.18	.10
취업상태(2)	-.10	.15	.39	취업상태(2)	-.33	.11	8.90***
거주지역			2.22	거주지역			1.66
거주지역1	.03	.10	.08	거주지역1	.07	.06	1.52
거주지역2	-.15	.12	1.53	거주지역2	-.04	.07	.29
가구소득등급	.10	.05	4.50**	가구소득등급	.14	.03	18.63***
단체참여	.53	.06	75.31***	단체참여	.53	.05	107.86***
자원봉사	.10	.10	.91	자원봉사	.53	.10	27.31***
심신건강	-.01	.02	.44	심신건강	-.04	.01	15.77***
모형카이제곱 (자유도)	286.517(11)			596.95(11)			
-2LL	1873.87			4138.62			
Nagelkerke R-제곱	.172			.214			

주: 성별(1: 남자, 2: 여자), 교육수준(1:초등졸~6:대학원), 취업상태(준거집단: 재직자)
 취업상태1(-1:재직자, 1:구직자), 취업상태2(-1:재직자, 1:비경제활동), 거주지역(준거집단:대도시),
 거주지역1(-1:대도시 1:중소도시) 거주지역2(-1:대도시, 1:읍면지역), 가구소득등급:10등급,
 단체참여:참여단체 종류의 수, 자원봉사:봉사활동 종류의 수, 심신건강(높을수록 건강)

2. 평생학습에 대한 장애 및 요구 관련 요인

가. 평생학습 요구 및 장애 요인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지난 12개월 동안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그럴 수 없었던 프로그램 유무에 대한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는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기 보다는 요구에 대한 근사치로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원하는 교육을 모두 받은 사람은 비록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있었더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있었다고 말한 경우는 전체의 13.5%이다. 이들 중에서 직무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싶었다고 한 경우는 5.5%, 취미와 여가 등 개인적 관심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받고자 한 경우는 12.7%이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가 직업능력개발보다는 취미와 여가와 관련된 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직업 및 경력 관련 훈련을 우선시하여 참가하였기 때문에 취미 및 여가와 관련된 학습은 받지 못하고 미루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이루어진 형식 및 준형식 학습의 목적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형식학습은 81%, 준형식학습은 63.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우선순위에서 앞서므로 먼저 학습을 하여, 취미 및 여가와 관련된 학습에 대한 요구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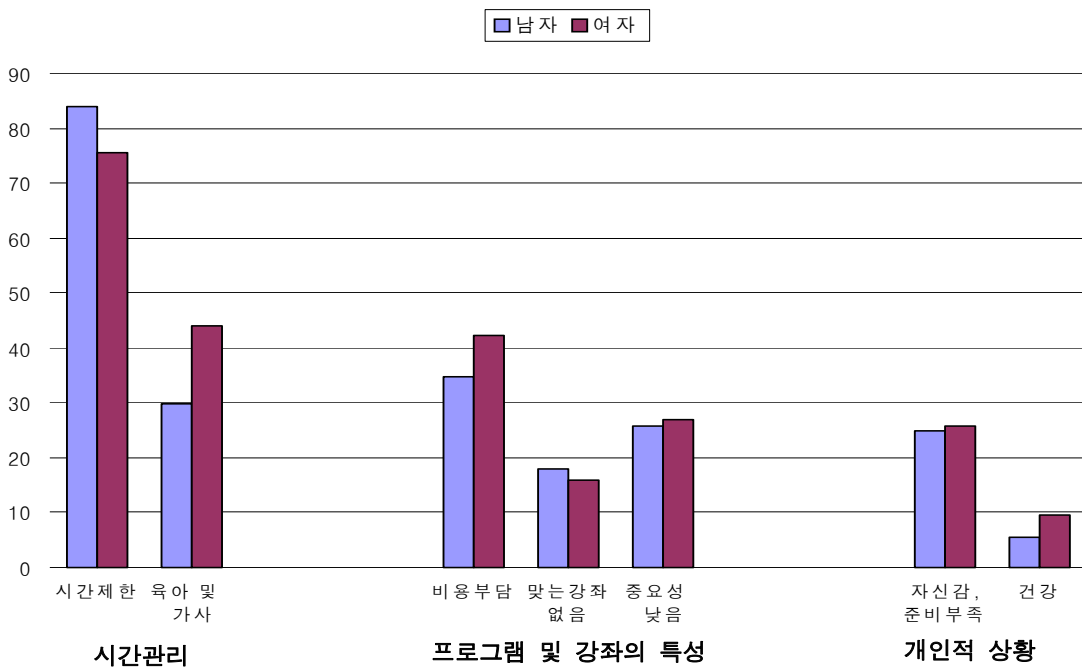
남성은 여성보다 직무관련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취미와 여가와 관련된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왕성한 학습 요구를 나타냈으며 그 이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교육이 필요한 집단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OECD(2003)의 조사 결과가 다시 확인되었다.

<표 6> 목적별 평생학습 요구 및 장애 요인

	지난 12개월 동안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교육		평생학습 장애 요인						
	직무관련	취미여가	시간제한	육아등 가사	비용부 담	적절한 강좌 부재	중요성 낮음	자신감 부족	건강상 이유
전체	5.5	12.7	79.2	37.6	38.8	16.8	26.4	25.3	7.8
남자	6.1	11.2	83.9	29.7	34.6	17.8	25.9	24.8	5.6
여자	4.9	14.1	75.4	43.9	42.2	15.9	26.8	25.7	9.5
10대	3.3	5.0	75.0	25.0	50.0	25.0	25.0	75.0	
20대	6.3	15.0	82.9	25.6	38.4	16.5	24.4	22.6	6.1
30대	7.7	16.5	83.5	45.2	38.3	15.7	27.4	26.2	5.6
40대	4.3	11.6	69.9	39.8	41.5	21.1	27.6	23.6	9.8
50대	2.8	7.0	77.1	31.3	37.5	12.5	22.9	27.1	12.5
60대	1.8	3.5	63.6	27.3	45.5	27.3	27.3	45.5	27.3
초졸	1.4	4.0	68.8	25.0	43.8		12.5	25.0	6.3
중졸	3.2	7.4	67.2	36.2	43.1	15.5	17.2	29.3	13.8
고졸	5.2	13.7	79.9	40.9	37.5	18.0	28.5	27.2	7.4
전문대졸	6.4	17.1	80.2	34.9	44.2	17.4	25.6	20.9	3.5
대학졸	8.9	15.2	82.8	35.2	35.9	16.6	29.7	22.8	9.0
대학원졸	14.8	25.9	80.0	20.0	40.0	13.3	6.7	20.0	
취업	6.5	13.3	87.7	31.8	33.3	16.7	25.3	23.6	6.1
실업	6.9	16.7	64.7	5.9	58.8	23.5	17.6	23.5	17.6
비경제활동	3.1	11.2	57.0	58.9	53.2	16.5	31.0	29.1	11.4

직업 및 경력과 관련된 학습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이유로서 직업 및 경력과 관련된 교육의 경우 시간제한(79.2%), 가사 및 육아(37.6)와 같은 시간 관리와 관련된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비용부담(38.8%), 필요와 흥미에 맞는

강좌가 없어서(16.8%),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여(26.4%)와 같은 프로그램 및 강좌의 속성과 관련된 요인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였다. 자신감 또는 교육 및 학습에 참여할 준비가 부족하여(25.9%), 건강(7.8%)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신체적 요인 또한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는 시간 제약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에, 육아 및 가사와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빈번히 장애 요인으로 선택하고 있어서 여성의 경우 시간 부족의 주요 요인이 육아 및 가사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개인의 학습에 대한 투자를 남성에 비하여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평생학습 장애 요인

나. 평생학습 요구 관련 요인

본 연구에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학습하고자 한 프로그램 및 강좌가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것을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의 근사치로서 간주하고, 그러한 요구와 관련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와 관련된 요구와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한 학습요구를 구별하여 질문하였으므로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별도의 분석을 하였다.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연령, 최종학력, 취업상태, 단체참여, 거주지역, 자원봉사, 형식 및 준형식 학습 참여,

비형식 학습 참여이였으며, 여가 및 취미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요구는 성별, 연령, 취업상태, 거주지역, 가계소득, 단체 활동 참여, 자원봉사참여, 심신의 건강으로 거의 모든 독립변인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차이는 직무 관련 학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가 및 취미관련 학습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요구가 더 높았다. 연령은 직무관련 교육 및 여가관련 교육훈련에서 일관되게 부적의 관계를, 학력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취업상태는 재직자가 비경제활동에 비하여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실직자와 재직자간에는 요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직무관련과 여가관련 교육 및 훈련에 일관되게 요구가 높았으며, 직무관련 교육 및 훈련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도 더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체 활동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학습에 대한 요구가 일관되게 높았으며, 심신의 건강상태는 여가 및 취미관련 학습에만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난 12개월 동안 이미 형식 및 비형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로짓분석 결과는 평생학습 참여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요구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참여할 것이며, 참여한 사람이 요구가 높을 것이라는 순환적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표 7> 목적별 평생학습 요구 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직무관련 교육 및 훈련			여가관련 교육 및 훈련		
	B	S.E.	Wald	B	S.E.	Wald
성별	-.08	.18	.18	.28	.13	4.6**
연령	-.02	.01	6.71**	-.03	.01	22.24***
최종학력	.18	.08	5.67**	.10	.06	3.53*
취업상태			9.05**			5.35***
취업상태1	.48	.31	2.42	.33	.24	1.89
취업상태2	-.58	.21	7.33***	-.40	.15	7.07***
거주지역			5.29*			5.20*
거주지역1	-.26	.12	4.49**	-.14	.09	2.72*
거주지역2	.27	.13	4.26**	.00	.10	.00
가계소득	.07	.06	1.31	.09	.04	4.05**
단체참여	.42	.07	38.56***	.31	.05	33.05***
자원봉사	.29	.11	6.78***	.44	.09	24.17***
심신건강	-.01	.02	.52	-.06	.01	16.10***
모형카이제곱(자유도)			134.54(11)			188.11
-2LL			1332.129			2298.798
Nagelkerke R-제곱			.11			.170

주: 성별(1: 남자, 2: 여자), 교육수준(1:초등졸~6:대학원), 취업상태(준거집단: 재직자) 취업상태1(-1:재직자, 1:구직자), 취업상태2(-1:재직자, 1:비경제활동) 중소도시(-1:대도시 1:중소도시) 읍면지역(-1:대도시, 1:읍면지역), 가구소득등급:10등급, 단체참여: 참여단체

종류의 수, 자원봉사: 봉사활동 종류의 수, 심신건강(높을수록 건강- 회귀분석 결과에서 전환)

V. 결론 및 논의

평생학습의 실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사회통계조사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통계 조사에서 포함하는 평생학습의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에 다양한 차원이 혼재되어(이정표, 2000) 평생학습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본 연구는 OECD와 캐나다 통계청이 주도하여 실시하는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실태에 관한 조사와 차이가 있다. 아울러 기존의 실태에 관한 연구가 기술통계 위주의 분석에 제한된 반면,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참여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생학습 실태로서 우선 주목할 사항은 형식 및 준형식 학습 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한 IALS 조사에 참여한 19개국의 평균 35.0%에 훨씬 못 미치며 최하위국인 포르투갈의 15.2%(OECD, 2000)보다 낮은 11.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의 주된 목적이 성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었으며, 평생학습의 실태에 대한 조사는 배경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조사의 과정에서 면접자의 설명이 부족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 평생학습의 방향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이 취미나 여가 위주의 학습에 제한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직업능력 개발에 초점을 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정태화, 2004)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형식 학습에 참여한 사람의 81.2%, 준형식 학습에 참여한 사람의 63.7%가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응답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평생학습의 우선적인 문제가 평생학습의 목적 수정에 있기 보다는 재직자 등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참여율 자체를 제고하는 것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IALS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업 관련 학습의 36.1%, 취미 및 여가 관련 학습의 경우 23.8%가 시간 부족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서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질문한 결과 79.2%가 시간 부족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생활 패턴이 평생학습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고용주에 의하여 비용이 지원되는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형식학습의 6.4%,

준형식 학습의 22.0%만이 고용주에 의하여 지원되었던 것과는 달리 핀란드는 54%, 덴마크는 52%, 영국은 50%, 스웨덴은 44%가 고용주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OECD, 2003)과 대조된다.

선행 연구(나영선, 김영화, OECD, 2003)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고령자나 저학력자, 저소득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집단이 학습 참여가 낮음을 재확인하였다. 고학력자들은 형식학습만이 아니라 준형식, 비형식 학습에서 일관되게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동시에 평생학습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이들은 학습의 효용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그러한 학습에 따라서 돌아올 이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집단임에 반하여 가장 학습이 요구되는 집단일수록 학습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이다(OECD, 2003). 평생 학습이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자 평생학습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촉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김영화, 2001)는 주장의 개연성을 보여주며, 지식경제 사회에서 고용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요청한 선행 연구의 호소(나영선 외, 2003)가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빈곤자'의 평생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학습의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학습을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청됨(OECD, 2003)을 시사한다.

평생학습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개략적으로나마 밝힐 수 있었다. 단체 활동 참여 및 사회봉사 참여로서 측정된 사회적 자본과 평생 학습 참여가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생학습이 인적자본(human capital)뿐 아니라 상호 접촉을 통해서 네트워크, 가족,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성을 촉진하여, 학습자에게 소속감과 통합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가족, 자신,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키워주고 취업 기회를 포착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김영화(2001)가 강조한 바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사회적 자본과 함께 본 연구에서 새롭게 평생학습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은 학습자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이다.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정서적 안정 및 활기, 신체적 상태로서 포괄된 심신의 건강 상태는 평생학습 참여 및 요구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이 시간부족과 비용부족의 압박 속에서 어렵게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은 평생학습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과 학습취약계층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축약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확연하게 높게 나타난 우리나라 성인이 주 5일제의 본격적 실시를 계기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성인학습 기관을 통하여 제공해야 하며, 특히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을 유연한 시간 구성과 함께 제공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부 및 고용주가 근로자의 학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확대와 학습 휴가 등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계몽하고 홍보하는 일이다. 넷째, 저소득자, 중·고령자, 저학력자 등 학습빈곤계층의 학습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학습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생계비 보조를 포함한 재정지원, 특성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동기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나영선·최지희·김상호(2003). 저학력·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손준중(2004). 성인학습자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결정요인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0, 109-128.
- 이기성(2004). 성인 직업교육훈련이 실태와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의 함의. 앤드라고지 투데이. 7, 43-70.
- 이숙원(2003). 대학평생교육 참여지속 과정에 따른 학습자와 교육기관 요인의 영향력 비교. 평생교육학연구, 9, 178-148.
- 이정표(2000). 평생직업교육훈련 종합대책(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병희·김미란(200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지선, 차갑부, 전현중(1999). 성인교육 참여율과 성인교육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홍근·홍선이(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책: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2004). 직업능력개발 중심으로서의 평생교육제도 개선. Issue Pape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박성정(2001). 평생교육 관점에서 본 인적자원개발체제. 평생교육학연구, 7, 159-175.
- 김영화(2001). 성인학습 기회와 참여의 형평성: 실태와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7, 41-68.
- 최운실·이희수·변정임(2003). 생애단계에 따른 평생교육 체제 모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299-325.
- 한승희(2002). 평생교육론: 거대담론과의 결별과 학문으로서의 자기 탐색의 계기 만들기. 평생교육학연구, 8, 221-245.

- 한준상(2004). 성인교육 패러다임의 탐구론.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2, 5-35.
- BJORNAVOLD, J.(2000). "Making Learning Visible: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non-formal learning in Europe", CEDEFOP, Thessaloniki, July.
- EUROSTAT(2002). *European Union Labor Force Survey, 2002*
- OECD(2003). *Beyond Rhetoric: Adult learning policies and practices*, Paris.
- OECD(2000). *OECD Economic Outlook, Vol. 68, December*, Paris.
- OECD& Statistics Canada(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 Statistics Canada(2001). *A Report on Adult Education and Training in Canada*.
- UNESCO(1972). *Learning to Be: The World of Education Today and Tomorrow*. Report of the Commission chaired by E. Faure, Paris.